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 모임’ 발기인 대회에 참가한 여성 1백여명은 “여성의 힘으로 여성을 지방의회에 진출시키자”고 결의했다. <이정우 기자>

“여성계 힘 모아 지방의회 진출”

‘범여성모임’ 발족 차별정책 타파 다짐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이 발족되었다.

20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진 범여성모임은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는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행 지자체 선거법이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하지만 여성의 힘으로 지방의회에 여성을 진출시키자”고 결의했다.

범여성모임 발기인들은 발기 취지문에서 “이번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지난 40여년동안 명맥만 유지해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 부정부패로 얼룩진 기성 정치풍토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전여성계가 힘을 모아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정치권의 여성참여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해 나가도록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스이

번 지방의회 선거기간을 통해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2~3명의 여성위원을 진출시키는 실천운동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여성모임에는 강기원(변호사), 김계정(여성의 전화 대표), 김영정(전 정부2장관), 손봉숙(한국여성 정치연구소 소장), 손덕수(효성여대 교수), 이계경(여성신문사 사장), 이태영(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한명숙(여성민우회 회장), 박현경(주부)씨 등 대학교수·여성단체 대표와 실무진·여성실업자·전직각료와 국회의원·전문직 여성·주부 등 1백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필운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한 범여성모임은 현재 회원을 모집중이며, 지방의회 선거에 참가할 뜻이 있는 여성들의 상담도 받고 있다. 회비는 1인당 1천원 이상. 연락처 723-0444.

91.2.21